

보수역적패당의 숭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촛불항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2일이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 최순실수순사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대중적인 촛불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연 23차례 걸쳐 촛불집회가 즐거하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남녀노소 가릴없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촛불투쟁으로 악의 소굴인 박근혜 《정권》은 마침내 역사의 쓴엄한 심판을 받고 붕괴되고말았다.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에게는 결코 앞날이 있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대규모촛불투쟁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그로 인한 박근혜 《정권》의 파멸은 외세를 통해 얻고 파쇼독재통치와 특대형부정부패행위에 미처달려서 온 겨레의 통일애국국민권을 무장히 짓밟는 반역부리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근로대중이 떨쳐나선 촛불투쟁은 박근혜역적패당에 의해 더럽혀진 정치풍토를 갈아엎고 사회정의와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의지를 장거리로선 전민통치체제를 반대하여 일민인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남조선에서 각계층 인민들의 촛불투쟁은 오늘날 계속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촛불항쟁에서 1년을 맞으며 《사회개혁, 적대성, 평화노선》을 주제로 하고 《세월》호상사의 진상규명과 리명박역도의 구속,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철폐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다시금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촛불투쟁에 의해 전민통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박근혜역적패당을 퇴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런 속에 박근혜역도의 치악속에 폐탈된 혁명적투쟁을 위하여 민심을 부추기 위한 구부보수단세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산술공방이 된 친화언어를 살려놓아서

현하기 위해 촛불항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이 다시금 항거의 촛불을 세켜서 지켜올리며 대중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촛불항쟁이 시작되던 1년이 된 지금 남조선의 현실을 보면 집권세력은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촛불투쟁에 의해 파멸의 위기에 몰려있던 피비호수패당이 퇴살아나면서 촛불민심에 발각적으로 도전해나오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계파들은 별의별 귀찮은 놈부터 동등민인심을 꼬드기면서 보수통합을 실현하여 거덜이 난 저들의 지반을 다시 꾸며주고 다음에 있게 될 지방자치선거를 어떻게 하나 보수부활의 계기로 만들려고 폐는 되어 날뛰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흥분표제기비들이 박근혜역도와 친박계 핵심인물들을 당에서 축출한다고 하면서 막대기 때려대는것도 저들의 민적체제를 가리우고 민심을 얼어넘기며 《비문정당》것들을 끌어당겨 보수의 제정권을 실현하려는 교활한 정치판구대이다.

한편 피비호수패당은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보수적정산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이자들은 박근혜역도와 집권시기 저지는 피악들이 연속드러나고 리명박역도의 범죄사실들까지 폭로되고있는데도 변변스럽게 그 무슨 《정치보부》에 대해 떠돌아다녀 적폐정산을 가로막으려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이런 속에 박근혜역도의 치악속에 폐탈된 혁명적투쟁을 위하여 민심을 부추기 위한 구부보수단세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산술공방이 된 친화언어를 살려놓아서

외세의존병자들의 공상스러운 비력질

피괴당자들이 외세를 상대로 《북핵공조》 구걸놀음에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다. 유럽나라들을 행락한 괴뢰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공중에서 비라소리과 남 정도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 누구를 《비핵화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제와 압박》을 애걸하였다. 그에 앞서 서울에서 일본외무성 관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남조선과 미국, 일본이 《북핵문제》를 놓고 《긴밀히 협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수작질하였다.

한편 괴뢰외무부 장관 조영준도 여러 국제회의에 날뛰고 내밀고 《세계가 우려하는 사안》이다. 《긴밀한 국제공조》나 하고 떠돌며 반공외국제제압박을 극구 나서달라고 간성하였다. 나중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하느니, 《출발의 길을 선택》하느니 하는 주제를 남달라까지 제쳤다. 이것은 국가력무력한성의 최후단계에 몰려선 우리 평화국의 위력에 걸음은 미국산 미친계들의 단말미적박에 지나지 않는다.

치마두는 대적비치정어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괴뢰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짠 있으면 외세의 주먹에 베달려 반공외국제제압박을 청탁하는 구걸외교를 벌려놓고있는것은 바로 세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괴뢰외무부 장관까지 공상스러운 비력질을 내는것은 참으로 만신스러운 못이 아닐수 없다.

괴뢰들이 세삼사람들로부터 《미국의 가랑이 밑을 거머 쥐고있어 있어는 트럼프의 삼살계》로 조롱당하면서도 수치의 상처를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대북제제압박》을 구걸하는 꼴이 야마달 거명영의 가련한 꼴을 방불케 하고 있다.

세살짜리 못 어른까지 가고 제 못은 못은 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당국이 촛불투쟁에 의해 등장했다고 하지만 외세에 빌붙으며 동족압박을 간성하는 못된 악습은 털어버리지 못하였다.

최근 괴뢰들은 《북핵문제의 시급성》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외세의 반공외국제제압박공조를 강하게 보이고 푸는이 되어 날뛰고있다. 우리에 대한 제제압박을 구걸하는 놀음에는 괴뢰외교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재개를 요구하는 집회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 재개를 요구하는 전국집회가 10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장에는 《일본정부는 한국은 민족교육에 대한 무당한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게 고교무상교육을 즉시 적용하라!》, 《도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무당한 판결을 단호히 규탄한다》 등의 글발이 띄어진 프랑카들이 걸려져 있었다.

이튿날 총연중앙상임위원회의 의장과 간도지방 조선고급학교 교원, 학생, 졸업생들, 학부모들, 조선대학교 학생들, 제일모를,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전국집회》실행위행위 조선소년단체인 조선고급학교교장외, 조선고급학교학생연락회, 조선학교전국어머니회연락회, 조선고급학교졸업생연락회와 일본속단체인 일본조선학술교육연구회,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연락회를 비롯한 일본인의 여러 단체 성원들 3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제반에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도쿄지방재판소가 내린 무당한 판결에 격분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방해하려

핵재난을 몰아오는 매국역적행위

《핵동맹》에 대해 떠들어대며 남조선에 상진의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여 지금 또다시 저들의 본성을 드러내며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꼬고들며 상진의 전술핵무기제제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의 흥분표제기비들이 박근혜역도와 친박계 핵심인물들을 당에서 축출한다고 하면서 막대기 때려대는것도 저들의 민적체제를 가리우고 민심을 얼어넘기며 《비문정당》것들을 끌어당겨 보수의 제정권을 실현하려는 교활한 정치판구대이다.

이러한 속에 박근혜역도의 치악속에 폐탈된 혁명적투쟁을 위하여 민심을 부추기 위한 구부보수단세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산술공방이 된 친화언어를 살려놓아서

남조선 단계 미제침략군기지의 오염정화를 요구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강원 미제침략군기지에 내 놓기로 되어있는 방사능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기지의 토양에서는 암울 일 수 있을 수 있는 디옥신, 고염세를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지하수는 비소,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인민속단연합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군기지에서 각종 독성물질 제거를 요구하였다.

청년실업률 계속 증가

최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년실업률은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훨씬 높으며 2015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광주대학 학생시행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시사하는 문건 공개

남조선인민신문은 《민중의 소리》가 10월 27일 미국이 전두환군사파쇼당국의 광주대학학생들을 조장, 묵인하고 직접 개입하였음을 시사하는 자료 공개행위를 비판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실었다.

안팎이론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

최세의 특대형정치주물사건의 장본인이며 부정부패의 왕조인 박근혜역도도 또다시 제판을 거부하며 우악하게 놀아내고있어 남조선 각계의 분노와 혐오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남녘땅을 진감하는 분노의 함성, 거대한 촛불바다



남조선에서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촛불항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2일이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 최순실수순사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대중적인 촛불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때부터 올해 4월까지 연 23차례 걸쳐 촛불집회가 즐거하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남녀노소 가릴없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촛불투쟁으로 악의 소굴인 박근혜 《정권》은 마침내 역사의 쓴엄한 심판을 받고 붕괴되고말았다.

